

## 강정, 생명과 평화가 무엇이더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선 강정의 물음 -

서 성 환 (목사, 제주 사랑하는교회)

### 1. 참회와 함께

그날은 하늘은 맑았으나 초겨울의 날씨로는 매우 쌀쌀했다. 2011년 11월 25일 11시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임원 목사들이 새로 취임한 해군기지건설사업단장(해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교체)을 위해 해군기지건설사업단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제주도내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날이었다.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제주도내 21개 개신교 교단이 만든 협의체이다. 제주에 있는 400여 교회를 대표한다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이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럴 듯 해 보이는 자리에나 관심있는 인사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성도나 교회나 교단, 그리고 특히 제주사회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이들의 광고를 보고 강정에 사는 성도들과 주민들이 격노하였다. 예정된 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에 사는 성도와 많은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사업단 정문으로 모여들었다. 제주시를 비롯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다.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자 회장이라는 목사가 몇몇 임원을 대동하고 사업단 앞에 나타났다. 이들을 알아본 강정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예수님이 전쟁기지 만들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이나?”

“강자 편에 붙어서 약자를 짓밟는 것이 목사들이 할 것이냐?”

“강정이 지난 5년간 피눈물을 흘릴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자들이 이제 뭘 얻어먹으려고 나타났느냐?”

“당신들이 찾아갈 사람은 새로운 해군기지건설 사업단장이 아니라, 지금 제주교도소에 갇혀있는 강정마을회장이다.”

연로한 마을 주민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강정 마을에 사는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생명과 평화가 이런 것이냐?”며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아직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이러고도 너희들이 목사냐?”하며 격한 욕설과 함께 그들을 몰아붙였다. 그래도 그들은 목사들답게(?) 변명을 하며 한동안 버텼다. 그들이 버틸수록 항의와 욕설 수위는 점점 높아만 갔다. 뒤늦게 합류한 교단협의회 다른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도 그들은 기어이 기도회를 하려는 듯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한 것일까?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목사들의 설득과 조정으로 그들은 사업단 정문에서 몰려나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고 돌아갔다. 그들이 하려했던 기도회는 이렇게 무산되었다.

목사들이 강렬한 항의와 치욕적인 욕설로 무참해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나 역시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없이 부끄러웠고 강정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무한히 미안했다. 제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욕을 먹은 적은 일찍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분노와 연민을 느꼈다. 주님 앞에, 강정 주민들에게, 제주교회 앞에서 깊은 참회를 해야 할 일이었다. 그건 일부 목사만 욕먹은 일이 아니고 제주교회 전체가 오물을 뒤집어 쓴 일이고, 제주선교와 복음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일이라 생각되었

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2.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제주 화순, 제주 위미 등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지부진하였다. 급기야 2005년 당시 제주도지사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제주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폐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4월 27일 난데없이 제주 강정마을회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강정에 유치하기로 결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날 총회는 제대로 공고조차 하지 않은 마을회 향약을 명백하게 위반한(향촌의 자치규약에서 정한 공고일, 수시방송의무, 공고내용 위반) 불법총회였다. 그것도 매수된 87명의 주민들이 찬성반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수치고 끝낸 그런 불법총회였다.

강정마을에는 약 1,900여명이 살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이 총회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언론에 공표해 버린 것이었다. 이는 화순과 위미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된 바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정부와 해군당국의 꿈수였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서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2007년 7월 당시 마을회 회장을 탄핵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세우고 이전 불법마을총회의 결의를 무효화했다. 2007년 8월 주민 투표를 해서 유권주민 69%가 참여한 가운데 94%의 지지로 해군기지 유치반대를 공식 결의하였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에 대해 엄중히 문책한 것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마을 주민의 확고한 결정이었다. 제주강정해군기지건설은 그 출발부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짓밟은 폭거였다.

그러면 무엇이 정부와 해군, 그들의 꼭두각시가 된 사람들이 이 천만부 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이 이 어이없는 일을 찬성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익 빨갱이, 중북주의자로 몰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국가안보론과 지역경제발전론이다. 그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선전한다. 또한 그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희유한다. 이를 관철하고 반대를 무마하려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포장하지만 공색한 변명에 불과한 뗏뗏하지 못한 속임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제주해군기지는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경쟁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오히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며, 제주의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많은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온갖 무리를 다 해가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해군의 제 몸집불리기와 이와 결탁한 건설재벌의 탐욕을 꼽을 수 있다. 다음, 이른바 비밀 고급정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체를 공개한 적이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수준의 압력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자주국방이라는 명제와 어울려 강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참여정부 스스로가 선포한 ‘세계 평화의 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는 없다. 참여정부가 무슨 근거와 논리에서 ‘세계 평화의 섬’과 ‘제주해군기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진정 세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는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런 자가당착적인 궤변이 가능한지 모를 일이다. 신앙적으로 생명과 평화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소중한 실천적 가치이며, 어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과 명분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온갖 불법과 폭거를 일상적으로 일삼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어떤 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이 강정에서 자행한 폭거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강정 구럼비는 1.2km에 달하는 통바위로 거기서 바라보는 범섬과 바다는 무엇으로도 형언하기 어려운 어머니 품 같은 풍광이다. 강정 중덕해안과 구럼비 바위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이며 제주도가 정한 절대보전지역이다. 이는 생명과 평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이를 모조리 파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강정 구럼비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보호대상 동식물인 붉은발말뚝개, 맹꽁이, 제주새뱅이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등,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둥,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인해 멸종되었는지, 심각한 훼손을 당했는지 아직 확인할 수도 없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명과 생태계의 파괴행위다.

강정 마을 사람들의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는 서귀포신문이 실시한 강정마을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한 가지라도(적대감 57%, 우울 53.1%, 불안 51%, 강박 50%, 대인민감성 44.9%, 신체화 38.8%, 편집증 37.8%) 정신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강정마을 사람 110명)중 75.5%에 달했다. 보통 인구의 2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존귀한 생명의 건강을 잃게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파괴 행위인 것이다.

설촌 400여년 동안 반농반어(半農半漁)하며 평화롭게 살아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평화 파괴 행위에 따른 파괴된 마을의 평화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활동가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 해군의 공권력과 용역들의 폭력과 인권유린도 빼놓을

수 없는 생명과 평화 파괴행위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련된 제주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기피와 판결은 또 다른 생명과 평화의 파괴이다. 그런 기소와 판결을 한 검사와 판사의 이름을 강정은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강정에서 생명과 평화 파괴가 횡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 전체와 한반도 전체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히 두려운 일이다. '세계평화의 섬'에 군사력을 의지하여 평화를 운위하는 '해군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고, 생명과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 3. 생명과 평화를 권력에 기대어 이를 것인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강정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일이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왜 참여정부의 보다 나은 민주사회와 통일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많은 정책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폐기한 이명박 정부가 유독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승계하여 실행하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건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역대 여러 정권 중에서 이명박 정권은 탐욕과 지배권력욕이 아주 두드러진 정권이다. 생명과 평화를 매우 경시하는 정권이기도 하다. 탐욕과 지배권력욕에 함몰된 이명박 정권에서 생명과 평화는 설 자리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이른바 고급정보에 따른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이라면 국민과의 소통에 힘입어 넉넉히 극복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없는 정권은 언제라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무력과 폭력의 힘을 숭상하고 무력과 폭력의 힘의 질서를 믿는 지배적 권력의 보편적 속성이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지킬 의지와 능력이 그들에겐 없다.

이점에서 차기 정권을 경쟁하는 이들의 공약이나 그동안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완공을 이미 공약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강행할 것이 뻔한 일이다. 군사기지 건설을 신(新)성장동력이라 말하는 그런 정권에게서 생명과 평화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설령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과연 중단되고, 백지화될 지 확신할 수 없다. 그들도 지배적 권력의 보편적 속성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확답을 할 수 없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어쩌면 지배적 권력을 쫓는 현실 정치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진정 생명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평화를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이다. 이를 믿는 사람이 생명과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에서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평화는 더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 대신 이 일을 해줄 권력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성도들과 교회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특히 제주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기에 앞서 먼저 재를 뒤집어쓰고 참회해야 한다. 권력은 권력의 속성상 그렇게 한다고 쳐도, 생명과 평화를 받고 그 실천을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는 생명과 평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주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강정에서 생명과 평화가 깃뻛히고 유린당해도 외면하였다. 외면할 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고, 권력에 빌붙어 주구(走狗) 노릇을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좌빨과 중복주의자라고 폄박하였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공표되었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저지를 위해 금식기도를 하였다. 그때, 제주 다섯 지역의 기독교지역교회협의회가 연합으로 제주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려는 목회자 모임(목사회)의

이름으로 “이미 결정된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고 도정에 협력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성명이었다. 무슨 생각으로 제주도의 평화와 행복을 운위하면서 이런 성명을 내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일이다.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찬성하는 반(反)신앙적, 반(反)복음적 성명을 낸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찌하실지 참으로 두렵다. 이런 기류가 앞서 말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회의의 참담한 행태를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다.

#### 4.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

이러한 가운데서도 제주의 소수의 성도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한 마음이 되어 섬기면서 함께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4년여 동안 비폭력으로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다 탈진한 강정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죽음과 분쟁과 탐욕과 권력의 귀신들을 몰아내려고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600여명이 범법자가 되었고, 300여명이 구금과 벌금과 감옥살이를 하였다. 전국 주교회의의 확고한 결의와 지지 속에서 제주가톨릭교회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견고하다. 지금도 개신교는 매일 오후 3시에 제주해군기지건설단 정문 앞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가톨릭교회는 매일 오후 4시에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 정문 앞에서 미사들 드린다. 무릎이 닿도록 삼보일배(三步一拜)로 강정을 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적인 투쟁이기에 폭력화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떻게 거대한 정부권력과 재벌권력과 그에 편승하려는 대다수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에 비해 한 줌도 안 되는 강정마을 사람들과 평화단체와 평화활동가들이 6년여 동안 생업을 미루면서 비폭력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적 같은 신앙의 신비라 하겠다. 이 신앙의 신비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음악과 미술과 공연예술의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중에 예술적



영감을 받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평화버스, 평화선박, 평화비행기를 타고 강정에 오게 하고, 제주와 전국적인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연대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믿는다. 혹자는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은 해방이후 분단의 현실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이슈화한 사건으로 말한다. 이 평화를 생명신앙에 근거해서 비폭력적으로 수행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의 현장에서 수많은 성명서와 기도문과 그림과 노래와 춤과 예술작품들이 나왔다. 이들 헌신의 결정체이다. 필자의 여러 한계 때문에 하나의 성명서와 기도문만 소개한다.

### <2011 평화성명서>

**제주가 하나님의 평화 가득한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소서!**

2011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사랑선교회'가 주최한 '평화실천신학 세미나'에 참석한 제주도내 개신교 목회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가 진정으로 평화의 섬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천명하며 기도한다.

1. 우리는 갈등과 분쟁의 현실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2.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소중한 실천적 가치이며, 어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과 명분보다도 앞선다고 믿는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는다. 제주도의 비무장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한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 가치와 은총과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행위임과 동시에,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임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철회 결단을 촉구한다.

4. 제주해군기지 건설 대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중앙정부와 이를 실현해야 하는 제주도정은 평화활동가들과 평화운동단체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평화기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또한 제주를 평화교육과 훈련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계속하라.

5.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아픔을 나누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노력한다.

\* 이 성명서는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해서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공유하고 있음.

### 강정 중덕(구럼비)바다의 보존과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

이 아름다운 중덕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들은 이 땅과 이 바다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피조세계의 생명을 연결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들은 이 중덕바다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커다란 토대임을 믿습니다.

모든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아름다운 중덕 바다에 느닷없이 어두움이 덮쳐 왔지만, 주님의 그 밝은 빛이 검은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세상의 권력이 평화로운 강정공동체를 짓밟아도,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세상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불통의 세력들이 강정 땅의 생명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도 주님의 그 용솨는 생명의 힘으로, 전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중덕 바다는 거룩한 당신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이 중덕 바다는 신비한 당신의 숨결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중덕 바다는 아늑한 당신의 안식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거룩한 땅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더럽혀져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이 신비한 땅이 오만한 세력에 의해 짓밟혀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이 안식의 땅이 전쟁의 세력에 의해 찢어져야 하겠나이까?

주님이시여, 이 땅과 이 바다를 지켜주소서. 주님이시여, 평화롭던 강정 공동체를 되살려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오, 주님이시여, 그래서 저 울렁이는 파도소리처럼, 이 강정 중덕바다에 당신의 거룩한 소리가 그득하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그래서 저 거대한 바위처럼, 이 강정 중덕바위 위에 당신의 놀라운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창조세계를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소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작은 무리를 지켜 주소서.

이 작은 무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갈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넘치는 당신의 생명의 힘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중덕바다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중덕바다의 보존과 강정마을의 평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우리 모두

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당신의 신비를 찬미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강정 태생인 조영배 교수(제주대학교)가 쓴 것으로 매일 개신교회도회에  
서 공동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음.

## 5. 생명과 평화의 승리를 누리며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려는 지극한 헌신은 치열하지만 비장하지만은 않다. 생명과 평화를 만끽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와 같이 춤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승리한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헌신에 생명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언가 빠진 일이라 하겠다. 이미 승리한 마음으로 강정과 제주와 세상의 생명과 평화가 보존되고 온전히 누려지도록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즉각 중단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백지화되고, 강정의 구럼비와 중덕해안이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회복되어, 온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새롭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다. 강정과 제주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남겨두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강정과 제주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한국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卍